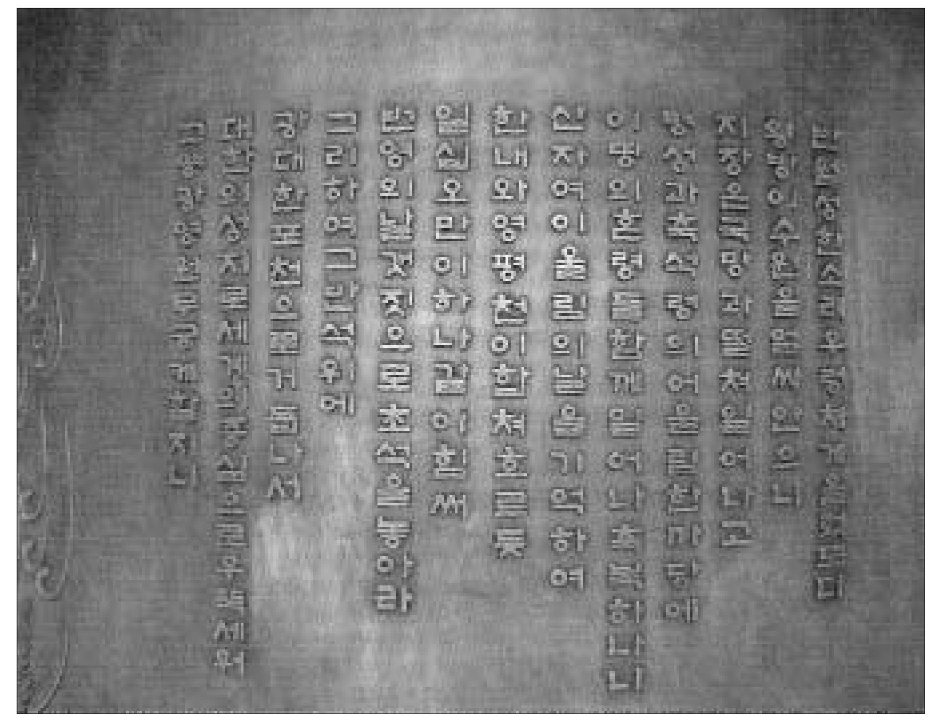
특별인터뷰 **최종규 포천시민대종제작추진위원장**

1천500年만에 市승격 기념 포천시민대종 打鐘式

종소리가 울려퍼질때마다 포천시민 모두 和合 · 發展 기원

최종규 포천시민대종제작추진위원장이 포천시민대종 제작을 위한 모금운동과 타종식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반월각안에 안치된 포천시민대종


포천시민대종에 새겨진 명문

포천시민대종 타종식이 시민의 날인 10월19일 청성문화체육공원 반월각에서 시민과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타종식은 내촌감리교회 김창성 목사와 포천유도회의 제례의식, 포천시사암연합회 석혜승 스님 등 종교계의 의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최종규 시민대종제작추진위원장이 박윤국 포천시장에게 포천시민대종 기증서 전달, 감사패 전달 등과 종각준공 테잎절단, 타종식 순으로 진행됐다.

본지는 포천시민대종이 타종식을 갖기까지 활동해온 최종규 포천시민대종 제작추진위원장을 만나 포천시민대종의 의의와 향후 관리방안 등에 관해 들었다.

(편집자주)

▶포천시민대종 타종식 개최 소감은?

타종식을 가진 포천시민대종은 이제부터 천년만년 우리 포천시를 지키며 포천시민의 부귀공덕과 안녕, 질서를 위해 울리고 또 울릴 것이며 그동안 시민대종 제작이 가능하도록 성금과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분들게 깊이 감사드린다.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방송과 신문에 반대입장에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자 2개월 동안 단 한푼도 성금이 접수되지 않았을 때이다. 당시 1억5천만원 정도 성금을 모금했을 때다.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포천시민대종 제작은 2년전 여성단체에서 구리모으기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며 성금모금이 시작되자 제일 먼저 성금을 내주신 우리방송 최선호 사장님이 700만원을 선뜻 내주신 고마운 뜻과 국가유공자이신 송웅한 선생의 정성어린 성금과 많은 사람들이 모아주신 정성을 져버릴 수 없었다.

▶가장 감명 깊게 느낀 적은?

역시 창수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송웅한 선생이 찾아왔다. 몸이 좀 불편해 보이고 넉넉한 살림은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오시자마자 거금 1백만원을 기탁하면서 적으나마 보태어 써달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150만원을 기탁하며 이것은 내가 아들이 다섯인데 많이 못하고 한놈이 30만원씩 성금을 내시겠노라며 모두 250만원을 기탁했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당시 변진수 포천교육장이 포천시민대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라나는 학생들도 포천시민대종 제작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동전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학생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성인이 되었을 때 느끼는 감동은 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코흘리게 아이들에게까지 강제로 성금을 모금한다는 방송보도로 경기도교육감에게 불려갔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포천시민대종 제작상 의미는?

포천이 마홀군이란 득명을 한후 견성군 명지 포주 포천군에서 1천500여년만에 포천시로 승격이 되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인구가 15만명이 되어 종의 무게를 15톤(4천관)으로 하고 종각은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으므로 21세기를 지향하는 21평을 지었다. 이 종에 조각된 소나무 잎 하나하나, 원앙새의 깃털 하나까지도 선명하게 잘 표현이 되었다. 특히 이 종을 맡아 주조해주신 성종사의 사장이신 인간문화재 112호 원광식 선생이십니다. 밀납주조방식을 새로 연구개발하고 근세에 만들어진 종 중에 가장 미려하게 만들어졌다고 극찬했다.

▶포천시민대종 안치시 애로는?

포천시민대종이 종각이 설치된 청성문화체육공원 반월산 중턱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처음에는 군부대의 헬기를 생각했다. 5군단에 문의한 결과 15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헬기는 없다고 한다. 그래서 탱크구난차를 생각했다. 그러나 이 또한 산림훼손이 예상되면 복구비만도 2억원이 넘게 소요된다고 한다. 결국 고심 끝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의 포크레인을 이용하기로 했다. 1회 이용료만도 500만원이다. 종 제작이후 2개월만에 종각에 종을 안치할 수 있었다. 안치하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포천시민대종 관리 · 운영방법은?

포천시민대종제작추진위원회는 종을 제작하고 종각에 안치해서 포천시에 기증했다. 이제 포천시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관리하면 된다.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포천시 전체의 경사스러운 일은 물론이거니와 시민 개인의 경사스러운 날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결혼식, 칠순잔치 등 집안의 경사에도 종소리를 울릴 수 있도록 하되 이용료를 받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한다.

▶포천시민대종제작추진위원회의 앞으로 계획은?

포천시민대종 제작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의 하나의 책을 만들어 영원히 보존하고 싶다. 물론 포천시민대종 종각에 기름 먹인 한지에 붓글씨로 명단을 적어 보관하고 있다. 종이 울릴때마다 명단도 함께 만 천하에 울려퍼져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오는 11월말까지 책자 제작을 완성할 것이다.

▶그동안 성금모금 총액은?

1천700여명이 참가해 4억8천657만4천원을 모금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기탁하신분은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황성택 지부장님이 3천만원을 기탁했다. 종 제작에는 총 투입금액이 5억5천650만원이다. 부족한 금액 6천992만6천원은 지원 받았다.

▶포천시민대종 운영상 풀어가야 할 과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교통문제다. 포천시민대종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다. 도로를 개설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차도 양쪽에는 보행로를 만들어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화장실 문제다. 종각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해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 또 한가지의 문제점은 물 부족이다. 지하수를 이용하려고 100m이상 내려갔으나 물이 없다. 상수도를 연결해서라도 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포천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성의를 갖고 모금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종소리가 들릴때마다 다같이 화합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서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종소리를 듣는 모든 시민의 가정이 평안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아울러 포천시민대종 제작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민대종 명문(銘文)

손진용(시인 · 송우초등학교 교감)

반월성 한소리 우렁차게 울렸도다
왕방이 수원을 얼싸 안으니
지장은 국망과 얼켜 일어나고
명성과 축석령의 어울림 한마당에
이 땅의 혼령들 함께 일어나 축복하나니
산 자여! 이 울림의 날을 기억하여
한내와 영평천이 합쳐 흐르듯
일심오만이 하나같이 힘써
번영의 날갯짓으로 초석을 놓아라
그리하여 그 반석위에
光大한 포천으로 거듭나서
조선의 성지로,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세워
그 영광 영원무궁케 할지니

포천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 명단

ㅁ위원장 ▶최종규 ㅁ부위원장 ▶박경희 포천시의회의원 ▶강수동 발기위원 ▶김인만 포천상공회의소회장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 ▶장경섭 포천시리통장협의회장 ▶최계옥 포천시부녀회장 ▶김영자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ㅁ감사 ▶양윤택 발기위원회 간사 ▶이석구 포천시교육삼락회장ㅁ사무국장 ▶윤석준 포천청년회의소 회장ㅁ자문위원 ▶최대종 포천시의회의장 ▶홍기형 대진대학교총장 ▶김병수 포천중문의과대학교총장 ▶이보령 경복대학장 ▶임희동 포천시법원장 ▶김영목 포천경찰서장 ▶변진수 포천교육장 ▶황성택 농협포천시지부장 ▶이만구 포천시문화원장 ▶윤장일 평통포천시협의회장 ㅁ위원 ▶최호열 포천신문 발행인 ▶김성남 포천시농업경영인협의회장 ▶문은주 대한어머니회포천시지회장 ▶이준호 부동산중개인협회 포천시지회장 ▶김봉균 소흘읍이장협의회장 ▶고훈태 소흘농업협동조합 ▶연효숙 대한적십자부녀봉사회포천시지회장 ▶이경진 진산미술관장 ▶이형순 전 포천읍장 ▶이광호 재향군인회장 ▶이병업 바르게살기협의회장 ▶김철수 군내면이장협의회장 ▶조광연 내촌면이장협의회장 ▶이윤우 포천시 재향경우회장 ▶심재호 가산농업협동조합장 ▶최지용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전승현 가산면이장협의회장 ▶최봉배 신북면이장협의회장 ▶박청례 한국부인회포천지회장 ▶이호운 창수면이장협의회장 ▶박희숙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의 모임회장 ▶정찬욱 영중면이장협의회장 ▶김명수 포천시약사회장 ▶양재창 포천향교 전교 ▶안남근 영중농업협동조합장 ▶강태선 포천시의회의원 ▶맹호익 일동면이장협의회장 ▶장보영 이동면이장협의회장 ▶이동해 발기위원 ▶박광국 발기위원 ▶하연호 전 영북면장 ▶정해균 포천시욕식업조합장 ▶용희중 영북면이장협의회 부회장 ▶이창원 관인면이장협의회장 ▶이수기 관인농업협동조합장 ▶김종용 포천시의회의원 ▶윤효준 이북5도민회장 ▶차희형 화현면이장협의회장 ▶윤장일 포천시평통협의회장 ▶최규필 교원연합회장 ▶한연자 여성농업경영인회장 ▶김진도 예총 포천시지부장 ▶윤인수 한의사회장 ▶김순임 포천시여성의용소방대장 ▶이운영 포천동통장협의회장 ▶이재학 포천시의용연합대장 ▶최재운 포천농업협동조합장 ▶고영채 포천의료원장 ▶박일서 포천시 생체협의회장 ▶이상덕 포천청년회의소 회장 ▶김영오 포천시의회의원 ▶김영대 포천시의회의원 ▶이중효 포천시의회의원 ▶이천묵 포천시의회의원 ▶이일훈 ▶원흥순

포천시민대종 타종식 式辭

安寧하십니까?

저는 포천시민대종제작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해 온 최종규입니다. 오늘 포천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 할 市民大鐘 打鐘式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이란 옛부터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록할 만한 기념일이나 祝賀의 뜻이 담겼거나 소중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 남긴 문화 유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만들어진 포천시민대종도 포천이 馬忽郡이란 得名을 한 후 堅城郡 命旨 抱州 抱川郡에서 1,500餘年만에 抱川市로 昇格이 되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人口가 15萬名이 되어 鐘의 무게를 15톤(4,000관)으로 하고 鐘閣은 우리가 지금 21世紀에 살고 있으므로 21세기를 지향하는 21평을 지어 그 뜻이 심오한 것입니다.

과거 1,000여년전 新羅時節에 만들어진 종이 아직도 남아 그 위용이 당당함은 종의 生命力을 과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타종하게 될 포천시민대종도 이제부터 천년만년 우리 抱川市를 지키며 抱川市民의 富貴功德과 安寧, 질서를 위하여 울리고 또 울릴 것입니다.

이 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만2年前 여성단체에서 구리모으기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抱川市民大鐘 制作推進委員會를 構成하고 誠金募金이 始作되었습니다. 誠金募金이 始作되자마자 제일 먼저 誠金을 내 주신분이 우리放送에 최선호사장님이였습니다. 최사장께서는 거금 700萬원을 가지고 오셔서 선뜻 내주실 적에 아! 이 鐘은 成功的으로 鑄造되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希望에 찬 첫 발을 내딛으면서 다음으로 모금에 감명깊게 느낀 때는 蒼水面에 사시는 송웅한先生께서 오셨는데 모자에는 국가유공자 帽票가 달려있고 가슴에는 국가유공자 勳章이 달려 있는데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고 넉넉하게 사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오시더니 거금 백만원을 내놓으시면서 적으나마 보태어 써달라고 하시고는 다시 150만원을 내놓으시며 이것은 내가 아들이 다섯인데 많이는 못하고 한놈이 30萬원씩만 성금을 내시겠노라며 도합 250萬원을 내놓으실적에 정말로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誠金을 가장 많이 내주신 분은 農協中央會 황성택 抱川市支部長으로 3,000萬원이라는 큰 돈을 中央會에까지 가셔서 상사들과 협의후 헌성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마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극부도 있었습니다. 종제작이 싫으면 자기가 안내면 될 것인데 어려운 서민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선동하고 여론화하며 신문에까지 게재를 해서 한 때 誠金을 내는 것이 중단이 되어 당혹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동전모으기운동이 전개되었었는데 학생들에게 강제모금을 한다고 해서 변진수교육장님께서 경기도 교육감님께 호출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동전을 걷어서 그것이 큰돈이 될 것도 아니고 강제모금을 한다고 모금이 되겠습니까. 오로지 학생들에게 메말라 가는 정서를 되살리고자 시도 한 바 동전 몇 푼 낸 뒤에 먼 훗날 늙어서 홍안백발이 되어 이 종각 앞에 왔을 적에 나도 이 종을 만들 때 동전 몇 푼 냈다며 옛일을 회상할 때 그 정서는 지금의 동전 몇 푼에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된 모금운동을 다시 설득해서 486,574천원이란 거금이 모아졌습니다. 아마도 이 거금은 抱川市가 되기까지 1,500여년 역사이래 誠金이나 기부금으로는 제일 많은 액면이 모금되었다고 생각됩니다. 鐘鑄造費가 556,500천원이니 부족액이 69,926,000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 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誠金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공개를 안한다고 시비가 있었습니다만, 誠金받은 것은 단돈 천원이라도 다른데 쓰지 않고 오로지 鐘만드는데만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며 寄附者名單은 打鐘式이 끝나면 기부자 여러분들께 決算報告와 함께 책으로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포천시민대종제작추진위원회 임원님들과 朴允國市長님을 비롯한 職員여러분들, 抱川市議會 議長님을 비롯한 議員여러분, 그리고 各 邑.面.洞의 책임을 지신 분들과 抱川市民大鐘 推進委員會 各 邑.面.洞委員長님들의 精誠어린 勞苦가 아니었든들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鐘에 조각된 소나무 잎 하나하나, 원앙새의 깃털 하나까지도 선명하게 잘 표현이 된 것은 한양조각실의 유원종선생의 조각솜씨도 찬양하지만 특히 이 鐘을 맡아 鑄造해 주신 聖鐘社의 社長이신 人間文化財 112호 元光植先生이십니다. 밀납주조방식을 새로 연구개발 하셨을 뿐 아니라 근세에 만들어진 종 중에 가장 미려하게 만들어졌다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大學校정밀기계연구소에 羅亨用교수님의 각별하신 지도의 대가라고 生覺되어 이 자리를 빌어 眞心한 謝意를 表합니다.

다음으로 이 鐘閣은 한겨레건축의 金成坤先生께서 設計를 하시고 우리 抱川에 세이프建設 全邦眞會長께서 갖은 力量을 다 動員하시어 없는 材木을 어렵사리 求해다 기둥을 세우고 멋진 鐘閣을 지어주셨을 뿐 아니라 모금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鐘의 打鐘을 위해 글을 지어 주신 분들이나 또 글을 써 주신 분들, 그리고 각을 해주신 분. 그 외에도 抱川市民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은 앞으로 이 종이 울릴 때 마다 家和萬事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如意大成하시며 萬事亨通하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이 鐘이 울릴 때 마다 우리 抱川市의 市民들은 和合과 團結은 勿論 希望찬 未來의 發展을 爲하며 나아가서 世界平和를 爲하여 천년만년 잘 保存되고 잘 울려 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鐘 만드는데 참여 해 주신 여러분들께 感謝를 드리며 式辭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